



양천가방협동조합 '란트'

가방 장인이 뭉쳤다... "공동 브랜드로 승부수"

80~90년대 수출 호시절 가고 베트남·중국 등지로 떠나 45개 업체 '조합'으로 재기 도전

제조 전 과정 국내서 분업 백팩·핸드백 등 30여종 선보여



조규남 양천가방협동조합 이사장이 공동 가방브랜드 '란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혜정 기자

"30~40년 경력의 가방장인들이 일거리가 없고 젊은이도 유입되지 않아요. 국내 가방 제조기술의 대가 끊어질 판입니다. 협동조합으로 이런 위기를 돌파해보고 싶습니다."

조규남 양천가방협동조합 이사장(사진)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작은 가방 공장 45개가 참여한 협동조합(조합원 183명)을 설립한 이유다. 2015년 설립된 조합은 '란트(LANTT)'라는 공동 브랜드로 30여 종류의 가방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별로 원단 재단부터 입가공 각 과정을 분업화해 100% 국내산 가방을 내놓는다.

◆공동 브랜드로 돌파구 모색 신월동 일대는 1960년대부터 가내수공업 형태의 가방공장이 밀집한 곳이었다. 1980~1990년대 아디다스·푸마·샘소나이트 등 글로벌 브랜드의 하청을 받아 수출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대기업 등의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하면서 국내 생산 물량이 크게 줄기 시작했다.

조 이사장은 "일감 감소와 함께 인건비가 오르고 국내 생산이 다단계 하청구조로 변하면서 입가공비마저 낮아졌다"고 말했다. 수십 년 경력의 가방기술자들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져서 중국 등 해외로

나아가거나 다른 직업을 병행하는 상황을 맞았다.

그는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리는 가방 10개 중 8~9개는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국산과 비교해 최종 소비자가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생산단가는 20~30% 이상 저렴해 판매자(유통업자) 입장에서 수입에 파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국내 업체 가방 제조업체는 저마다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 공동 생산 및 마케팅을 통해 단일 브랜드로 생존의 돌파구를 모색하게 된 배경이다.

조 이사장은 "생산 과정을 효율화하고 판매 마진도 10% 안팎으로 낮춰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했다"며 "국산 원단과 입가공 품질은 여전히 중국·베트남산보다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

별법'이 시행되면서 가방과 봉제, 구두 등 고시된 영세제조사업장에 대한 지원책이 생긴 것도 큰 힘이 됐다.

◆고품질 아이디어 가방 출시 조 이사장은 가방 제조에선 여전히 수작업 의존도가 높다고 했다. 그는 "등판 벨트 등 30~100개 이상의 조각을 퍼즐처럼 사람 손으로 일일이 맞춰가며 제작해야 한다"며 "컴퓨터 봉제 미신이 있긴 하지만 완벽하게 기계로 찍어낼 수 없는 게 가방"이라고 설명했다.

양천가방협동조합은 '란트' 브랜드로 백팩(배낭), 여행용 캐리어, 예코백(전으로 제작한 가방), 토트백(어깨나 손에 거는 여성용 핸드백), 지갑류 등 30여 종류의 가방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조합은 여행 가방 디자인 공모전을 열기도 했다. 평소엔 백팩으로 사용하지만 바퀴 달린 거치대에 올리면 여행용 캐리어로 변신하는

양천가방협동조합

설립	2015년 5월
위치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
제품	배낭, 여행용 캐리어 등 가방 30여종
특징	원단·원부재, 입가공전공정 국내산 단체 주문제작 가능(300개 이상)

가방이 일상적으로 뽐냈다.

배낭을 접으면 작은 손가방이 되고 다시 펼치면 배낭이 되는 상품도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장, 창동 하나로 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조합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및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의 외주 물량 납품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관측물 제작 등으로 판로를 넓혀가고 있다.

조 이사장은 "축적된 국내 가방 제조 기술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수용 가방 일부라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방 생산 전 공정이 모아서 일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문혜정 기자 selemoon@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제약·바이오업계 세대교체 바람

보령·콜마, 2·3세 경영 본격화 셀트리온·대웅, 40대 대거 승진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지 사장 김정균 보령홀딩스 대표

제약바이오업계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 보령제약과 콜마가 각각 3세와 2세 경영인을 대표이사 임명할 데 이어 셀트리온, 대웅제약 등도 40대 임원을 대거 기용하는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계 작업을 마무리하고 젊은 피 수혈에 나섰다 분석이다.

한국콜마는 지난 3일 창업주 운동한 전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엔에이지 부사장(44)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콜마홀딩스의 자회사인 콜마비엔에이지는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다. 윤 대표는 2011년 한국콜마 마케팅팀으로 입사해 2018년 콜마비엔에이지 기획관리총괄 부사장을 지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윤 회장이 퇴진하면서 장남인 윤상현 총괄사장(46)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어서 창업주의 자녀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보령제약은 창업주 김승호 회장의 손자이자 김은선 전 회장의 장남인 김정균 운영총괄(35)이 보령홀딩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보령홀딩스는 핵심 사업 회사 보령제약 지분을 52% 보유한 지주 회사다. 보령제약은 2018년 12월 김은선 회장이 사임하고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왔다. 김 대표가 지주회사 사령탑에 앉으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40대 임원들도 주요 부문을 맡으며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40대 상무 3명을 전무로 승진시켰다. 그동안 경영지원, 관리, 제품개발, 제조 등 4개 부문의 장이 상무급이었으나 이번에 모두 전무로 임명됐다. 대웅제약은 마케팅·영업총괄 부사장 자리에 이창재 본부장(43)을 임명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30대 후반에 본부장으로 발탁돼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2018년 전승호 대표이사(45)를 임명한 이후 주요 임원진의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다.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한 인재 중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게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50~60대 창업주가 중심축을 이뤘는데 최근 40대 초반의 전문 경영인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바이오, 화장품 사업 등 컨슈머헬스케어로 제약 바이오산업 영역이 확장되면서 임직원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손 안에 들어온 동네 가게... AR 활용해 쇼핑

(경향원실)

뉴스키페

소상공인 '스마트 리테일 서비스'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제품 판매

70만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사고팔 수 있는 '연용 플랫폼'이 등장했다.

한국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복)는 증강현실(AR)을 이용해 제품을 소개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인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 리테일 서비스(사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



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 상품의 작동 방식과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으며 가상으로 내 집에 배치할 수도 있다.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은 화상통화로 판매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연합회가 AR 비즈니스 솔루션업체인 팝스라인에 의뢰해 개발했다. 디지털 쇼핑시대에 대형유통사 및 온라인 유통사 틈새에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한 서비스다.

박인복 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위치 기반 AR 서비스를 이용해 가격을 흥정하거나 증정품을 추가해 제품을 팔 수 있다"며 "간단하게 가입해 소상공인 누구나 상품 판매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기 R&D 예산 1.5兆 '역대 최대'

투자형·후불형 지원 신설

정부가 투자형 연구개발(R&D)과 후불형 R&D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R&D에 역대 최대인 1조4885억원을 투입한다.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38.5% 늘어난 1조 4885억원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18개 사업 분야 R&D를 지원하기 위해 2807억원을 배정했다. 중견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 방식을 탈피한 투자 방식의 R&D인 '랩 투 마켓 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VC)이나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자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업이 성장한 뒤 정부의 투자 자본 일부를 기업이나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중기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금융·판로 등 분야별 정책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0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동시에 연다. 이를 시작으로 14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를 전국에서 총 270여 회 개최한다.

종합설명회에서는 중기부의 올해 주요 예산과 정책 방향에 대해 지방청장 등이 직접 설명한다. 금융·기술개발·창업·벤처·판로·소상공인(전통시장) 등 분야별 정책 방향과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부처도 참여해 중기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각 지방청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인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청별로 20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찾아가는 설명회 대상을 개별기업·창업자·시장상인 등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여성경제인협회 등 주요 중소기업 협회·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마련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www.jobjoy.com

Vol. 181

2020.01.13~01.26

campus **JOB & JOY**

2020 새해를 여는 90년대생 신입사원

한 해의 시작점인 1월 첫 호에는 96년생 취미들의 새해 위시리스트와 더불어, 신입사원 4인의 기사를 실었다. 하루를 누구보다 일찍 시작하는 기상캐스터와 공항 신입 관제사의 보람을 들어왔다. 그리고 2020년 새봄을 주목받을 신사업에 뛰어든 e스포츠 기획자와 AI 심리솔루션 연구원 이야기가 이어진다. 2020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할까. 이들 4명의 신입사원이 펼칠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 '대학생·구직자·신입사원' 96년생 취미들의 새해 위시리스트
- 최연미 기상캐스터
- 김선욱 인천공항 항공교통관제사
- 서지현 아이디어스튜디오 심리솔루션 기획파트 담당연구원
- 김연우 KR Esports팀 매니저
- 새해를 여는 새 유망직종

인터뷰

- 김광현 창업진흥원장
- 박경애 김포시 아동청년과장

현장 이슈

- "평소 같은 신입사원 채용하시겠습니까?"
- "열정 넘치는 스타트업 대표님, 워가 가장 힘드세요?"

평소 현장

- 청년 노조를 대표하는 '청년유니온'의 김영민 사무처장
- '도서정기제 폐지' 논란이 난민 여권

한국경제신문

가격 4,000원 / 정가구독 80,000원 / 구독문의 02-360-4841 / 광고문의 02-360-4821 / 사업문의 02-360-4831